

농어촌공사 강원본부, 강릉지역 가뭄대책 회의 진행

✎ 이우정 기자 | ㉠ 승인 2025.07.21 16:50 | ☐ 호수 3700

오봉저수지 정수지 간이양수장 점검도

[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17일 강릉지사 오봉저수지 회의실에서 강릉지역 가뭄대책 회의를 열고 강릉지역 가뭄 극복을 위한 단기, 중장기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17일 강릉지사 오봉지소 회의실에서 강릉지역 가뭄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천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김명일 강원지역본부장, 이형섭 강릉지사장, 김동식 강원도 친환경농업과장, 김경태 강릉시 농정과장 등 유관기관, 농정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강릉지역 가뭄 극복을 위한 단기, 중장기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가뭄 대책으로 설치한 오봉저수지 정수지 간이양수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명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강릉지역 가뭄의 근본적 해결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형섭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강릉지사장 “전 직원이 가뭄에 총력 대응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국적인 폭우에도 강릉지역 저수율은 21일 기준 43.7%로 가뭄 관심 단계이며 강릉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경우 36.3%로 평년 67.9%의 53.4% 수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다. 시에 따르면 이번 비로 8월까지 상수도 공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8월 중순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 다시 공급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릉=이우정 기자 leewj@agrinet.co.kr



이우정 기자 leewj@agrinet.co.kr